

1. 성경의 '왕' 직분(삼상 10:1, 11:15, 16:1, 13, 삼하 23:1, 왕상 1:45, 5:1, 대상 14:8, 단 9:25)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참고 - 삿 17:6, 21:25, 삼상 8:6-7)

(삿 17: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상 8:6-7) “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거룩의 판단(시 72:1)

(시 72:1)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며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규례(17:14-20) → 율법책과 관련하여 ‘율법책대로 판단’의 사명자

(신 17:14-20) “14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15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2. 유다 지파를 통해 왕이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

(창 49:10)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미 5:2)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 1차적으로 다윗을 통해 성취,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르 통해 성취

(마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 1: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 1: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3.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

(1) 초대 왕 사울(주전 1050-1010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삼상 10:1,)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 6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삼상 10:21)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 받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삼상 13:8-14, 15:1-9, 13-21, 26)
(삼상 13:8-9) “8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흠어지는지라 9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 요청(삼상 28:3-25, 대상 10:13-14) → 영적 분별력 없음
(삼상 28:14)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나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 오는데 그가 겹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대상 10:13-14) “13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임의로 파기(삼하 21:1-14, ^{참고}출 20:7, 신 5:11, 레 19:12)
(삼하 21:1-2) “1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삼 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피하였더라...”

(2) 유다 지파 다윗(주전 1010-970년)

- 10년간의 도피 생활이나 즉위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됨(시 19:7-13, 40:7-8)
(시 40:7)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이 두루마리 책(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고백(참고-신 17:14-20)
- 예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선포하시며 다윗의 경우를 인용(요 5:39, ^{참고}히 10:5-7)
- 다윗 언약: 종인가? 아들인가?(삼하 7:8-17)
(삼하 7:14-15) “14 나는 그 아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 밧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직함(왕상 15:5, ^{참고}왕상 3:6, 시 17:1)
- 열왕에 대한 선악의 평가 기준(왕상 11:33, 14:8, 15:11, 왕하 14:3, 16:2, 18:3, 22:2, 대하 28:1, 29:2, 34:2).

(3) 다윗의 아들 평화의 사람 솔로몬(주전 970-930년)

- (삼하 7:12-13)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13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대상 28:3)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 솔로몬에게 주신 평안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비롯한 하나님의 지혜(왕상 3:9-12, 4:25, 29-31, 대상 22:9)
(왕상 4:29-31)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 31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므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 스바 여왕의 고백(왕상 10:1-3, 6-7, 23-24)
 -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의 결론 → ‘경외’(잠 1:7, 전 12:13)
(전 12: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 말년에 말씀을 떠난 솔로몬(왕상 11:1-8, 30-33)
(신 17:17)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1) 연대 계산의 의미 - 확실한 역사성

① 즉위년과 무즉위년

즉위년 방식	무즉위년 방식
선임 왕을 이어 즉위한 해를 통치 햇수에 넣지 않고, 그 다음 해부터 통치 1년으로 세는 방식(주로 남 유다)	선임 왕을 이어 즉위한 해부터 통치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주로 북 이스라엘)

선왕	통치 19년	즉위 20년			
	즉위년 방식 사용시:	즉위년	통치 1년	통치 2년	
	무즉위년 방식 사용시:	통치 1년	통치 2년	통치 3년	

남 유다는 주로 즉위년 방식을 사용하였지만(단, 5대 여호람~8대 요아스까지 무즉위년 사용), 북 이스라엘은 주로 무즉위년 방식을 사용(단, 12대 요아스 이후 즉위년 사용).

② 해를 세는 첫 달

니산(1월)		니산(1월)		니산(1월)		니산(1월)		니산(1월)		니산(1월)		니산(1월)	
...	통치 5년	통치 6년	통치 7년	통치 8년	통치 9년	통치 10년	...						
...	통치 5년	통치 6년	통치 7년	통치 8년	통치 9년	통치 10년	...						
	b	a	a	b	a	b	a	b	a	b	a	b	
	티쉬리(7월)	티쉬리(7월)	티쉬리(7월)	티쉬리(7월)	티쉬리(7월)	티쉬리(7월)	티쉬리(7월)						

- **니산 기준** : 한 해의 시작을 니산월(제1월)을 기준(종교력: 유월절 - 칠칠절 - 초막절 순서)
- **티쉬리 기준** : 한 해의 시작을 티쉬리월(제7월)을 기준(민간력: 이른 비 - 경작 - 늦은 비 - 수확 순서)

③ 섭정과 공동통치

남 유다 섭정/공동 통치 총 7회	북 이스라엘 섭정/공동 통치 총 3회
① 주전 871-869년, 아사/여호사밧 3년간 공동 통치 아사 왕의 발병으로 여호사밧이 공동 통치 시작	⑧ 주전 884-880년, 디브니/오므리 5년간 분할 통치 주전 884년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통치 시작. 이후 오므리가 디브니를 쳐부수고 주전 873년까지 통치함.
② 주전 853-847년, 여호사밧/여호람 7년간 공동 통치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면서 여호람 공동 통치 시작	⑨ 주전 793-781년, 요아스/여로보암 2세 13년간 공동통치 남조 아마사와의 전쟁 때문에 여로보암 2세와 공동 통치
③ 주전 791-767년, 아마샤/웃시아 25년간 섭정 북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아마샤가 포로로 끌려가며 웃시아가 섭정 시작	⑩ 주전 752-741년, 므나헴/베가 서로 다른 지역 통치 주전 752년, 므나헴은 사마리아에서, 베가는 길르앗에서 통치 시작
④ 주전 750-739년, 웃시아/요담 12년간 섭정 성전에서 분향하려던 웃시아(아사라)가 문둥병에 걸려서 요담이 섭정 시작	
⑤ 주전 743-731년, 요담/아하스 13년간 공동 통치 요담은 국권을 든든히 하기 위해 어린 아하스를 왕위에 올림. 이후 요담은 주전 735년에 아하스에게 왕위를 넘긴 후 731년까지 섭정	
⑥ 주전 729-715년, 아하스/히스기야 15년간 공동 통치 아버지 요담과 같이, 아들 히스기야의 국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동 통치	
⑦ 주전 696-686년, 히스기야/므낫세 11년간 공동 통치 히스기야 생명 연장 후 므낫세에게 왕도를 가르치기 위해 공동 통치	

(2)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범위	사사 시대 말기부터 다윗 왕까지	솔로몬 즉위부터 여호아킨의 회복까지	아담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기록 배경	남 유다 왕국 초기	남 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 시	바벨론 포로 귀환 시
시대적 질문	우리에게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포로에서 귀환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백성인가?
강조점	통치와 구속사적 업적 위주로 기록		성전에 대한 강조
평가 기준	부정적인 면도 사실대로 기록		부정적인 면은 잘 언급하지 않음
북 이스라엘		상세하게 기록	기록하지 않음
책을 쓴 관점	이스라엘의 언약적 범죄와 징계를 통한 회복		제2의 다윗과 남아있는 언약

(3)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열왕

① 남 유다 열왕

- 다윗 언약의 계승자: 단순한 혈통, 계승의 기록이 아닌 언약의 흐름에 대한 기록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사	아사랴
					마태복음 족보에서 생략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낏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킨	시드기야
						마태복음 족보에서 생략			생략

- 신앙 전수의 중요성: 어머니 이름을 기록(왕하 21:1, 19)

(왕하 21:1) “므낏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② 북 이스라엘 열왕

- 하나님의 관심 밖의 존재들 → 역대기에는 기록조차 되지 않음 / 남 유다에게 가야 사는 존재
- 스스로 분열하여 분쟁함(계 17:17)
- 모두 악한 자(시 14:1-3, 53:1-3, 전 7:20, 롬 3:10-12)

2. 열왕시대의 결론

(1) 열왕기의 결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족을 버리셨는가? → 철저한 회개와 회복의 선포

(삼하 7:10-12) “10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왕하 25:27-30) “27 유다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지 삼십칠년 곧 바벨론 왕 에월브로닥의 즉위한 원년 십이월 이십칠일에 유다 왕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28 선히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29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30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2) 역대기의 결론

포로 귀환자들은 여전히 언약 백성인가? →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회복의 시작

(대하 36:20-23) “20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21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

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22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23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 직분의 성취

(1) 초림에서의 성취

(마 2: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요 18:36-37)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겸손의 왕(마 21:1-5, 눅 9:9, 참고-막 10:45).

(눅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마 21:1-5) “1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막 10:45)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 왕의 통치

(엡 1:20-22) “20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고전 15:25)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 하시리니”

(3) 왕의 직분의 사역

보호: 성도를 지키심(요 10:28)	다스림: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심(골 1:18)	정복: 사탄과 세상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심(골 2:15).
-----------------------------	---------------------------------------	---

(4) 종말론적 완성

(계 19: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 21:1-4)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갔음이라”

(계 2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